

# 잼버리 책임론·이동관 청문회...여야 8월국회 뜨거운 공방

### 국힘 “文정부·전북도가 잼버리 파행” 민주 “尹정부 무능이 부른 참사” 방송 3법·노란봉투법 놓고도 “반드시 처리” “필리버스터 동원 저지”

2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가 잼버리 책임 공방 등으로 더욱 뜨거워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대립해 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처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된다.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 대응에 각각 책임을 주창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행정위 현안 질의를 포함해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운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임시회 최대 ‘화약고’가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의 주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대적인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전임 정부를 거치면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책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이다.

아울러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돌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한계를 고려해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운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8월 임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 개회하지만, 본회의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여야가 아직 협의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신경전이 깊어진 측면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호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임기 종료에 맞춰 23일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해왔고, 당초 ‘말일 본회의’를 고수해온 민주당도 최근 23~24일 본회의의 개최를 검토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에 번지는 수도권 위기론...인재 영입 시계 빨라지나

### 안철수·윤상현 가세 꾸준히 제기

### 안정론·견제론 여론조사도 불리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총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지가 주목된다.

수도권 위기론은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른바 비운(비운석열)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최근엔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하면 우리 당 지도 체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이 지역구인 안철수의 의원도 지난 9일 KBS

라디오에 나와 총선 수도권 전망에 대해 “심각한 위기”라면서 “꺾임을 포함해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엔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포인트)에서 많게는 20%(포인트)까지 야당을 뽑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14.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1%-28.2%(서울), 36.5%-31.3%(인천·경기)로 국민의힘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에 대해

몰은 결과는 서울의 경우, 41.0%-45.7%이었고 인천·경기는 37.4%-46.8%로 두 지역 모두 정권 견제론이 더 높았다.

지도부 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지도부 흔들기라 보는 기류도 있다.

또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은 ‘박빙 우세’, 경기는 ‘박빙 열세’라는 분석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쉽지 않은 지역이었던 만큼, 수도권 위기론을 계기로 ‘인재 영입’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 역시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보다 다소 우세를 보이는 만큼 좋은 인재 영입을 후보로 내세우면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지지율 35%...2%p 소폭 상승

### 갤럽조사...국힘 36%·민주 3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월 1~3일)보다 2%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1%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결단력/추진력/혁신’(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경제/민생/물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10%), ‘경험·지질 부족/무능함’(9%), ‘외교’, ‘잼버리 준비 미흡/부실 운영’(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재난 대응’(4%) 등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가 부정 평가 이유로 포함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4%p 상승했고, 민주당은 1%p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 무당층은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감사원 ‘잼버리 파행’ 이르면 주내 감사 착수

### 국무조정실·대통령실은 제외될 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감찰 주제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부패 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쏟아 부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이 넘었는데, 대부분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나서게 됐다.

오송 참사는 수해 전후 기간만 감찰하면 됐고, 책임 소재를 가릴 대상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 조실이 전면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우, 화장실·사위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영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넛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